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낮은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눈아 올 테면 와라!

밤새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날부터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고, 오늘 주일 새벽에도 눈이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서울로 가야 했기에, 새벽부터 쌓일 눈을 치우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평소처럼 눈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눈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몸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 경사가 가장 급한 진입로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려 뒤이어 내리는 눈까지 녹일 계획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다행히 적중했습니다. 약 한 시간 정도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니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관리 집사님께서도 이때쯤 합류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쪽 주차장을 혼자 치운 터라, 이제는 집사님과 함께 아래쪽 주차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면 9시 30분까지 예상대로 눈을 다 치우고 서울로 갈 수 있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눈을 치우고 돌아보니, 새벽에 치운 위 주차장이 다시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경사진 진입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더 치우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같이 눈을 치워 주시던 환우분이 황망히 묻자 제가 실망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눈이 그칠 때까지 잠시 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쉬워서 지금까지 치우던 위 주차장을 계속 치우는 동안, 관리 집사님께서 경사로에 염화칼슘을 또다시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 작업이 얼마나 고된지 알기에, 웅벽 위에서 쉬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집사님, 눈이 그치면 하시죠. 잠시 쉬세요."

하지만 집사님께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예배 준비나 하십시오."

사실, 이전 관리 집사님께서 일을 그만두실 때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성실히 섬겨 주셨기에 그만큼의 분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조** 집사님은 이곳 마을 주민이자 청평 장로교회의 집사님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잘 섬기기에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조부님과도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할아버지세요?"

"네, 잘 아시나요?"

"그럼요. 청평 장로교회의 집사님이셨고, 한 동네 분이셔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조부님께서 마을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분으로 정평이 나 계셨습니다. 누구도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셨지요. 조** 집사님은 제 조부님과 인연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곳 소중한 사람들 건립 때 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조** 집사님의 부모님 산소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건물을 건립할 당시,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 산소가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법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산소의 주인을 찾아다니며 이장 비용을 지불하고 민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본래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 집사님은 다른 산소 주인들과 달랐습니다. 조** 집사님께서 오히려 이장비를 깎아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이미 좋은 면식이 있었던 덕분이기도 했지만, 집사님의 넉넉한 마음이 없었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소중한 사람들의 관리 집사로 오셨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조** 집사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마침 김장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얼마나 고된지 입술이 틀 정도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은 왜 그리 눈이 많이 오는지 눈이 내릴 때마다 새벽같이 나와 경사로를 정리하시고, 주차장을 치우시며 묵묵히 섬기는 모습에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뿐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주일, 점심 식사 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집사님, 근육통은 없으세요?"

그저 웃으시며 천천히 걸어 나가시는 모습에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이곳 청평 산자락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섬길 때 어려운 부분은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사실 외진 곳이라 오는 사람도 없고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기에 적은 월급을 드릴 수 밖에 없어 마음이 있다가도 선뜻 일하겠다고 하기도 어려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는 관리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묵묵히 성실히 섬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주일 예배는 서울에 가지 못하고 청평에서 유튜브로 동시에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며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내리는 눈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사용하시는 이유는, 병마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온전히 인도해 주실 터이니 소중한 사람들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눈아 올 테면 와라! 우리에게겐 섬김의 어벤져스가 있다."

글 / 이성일 목사

함께 가는 길

우리는 2010년 10월 아이티에 소중한사람들 센터를 마련했고 김용수 송연숙, 강행곤 조정숙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시켰다. 나도 그들과 함께 아이티로 들어갔다. 센터에 들어갈 물건을 구입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침대와 그릇 ... 아무 것도 없는 곳에 휴지통까지 일일이 사서 배치를 했다. 그런데 물가가 천정부지다. 20kg의 쌀이 20만원인 것이다 그것도 중국 쌀이 그렇다. LPG 가스 20만원인데 집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LPG 가스 상점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이다. 아! 아이티 이 나라는 망고, 바나나 만 돈을 적게 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수입을 하는 나라였다. 아파트를 판 돈은 이미 바닥이 났다. 나는 밤에 아무도 없는 침대를 돌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어떡하죠 하나님!" 그때 주님은 마가복음 8장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들이 배고픈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들을 굶겨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문제 제기를 주님이 하신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이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들을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으신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들은 심부름꾼들이다.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물건을 다 사주고 큰 것 두 가지 발전기와 자동차를 사주지 못했다. 한 달 뒤에 다시 아이티에 들어 올 것을 약속하고 아이티를 떠났다. 내 머리 속은 온통 발전기와 자동차 뿐이었다. 그런데 발전기는 미국에 계시는 조은* 권사님이 사 주시기로 흔쾌히 승낙을 하셨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는 그 해 12월 아이티로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기 하루 전 조이어스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새해부터 조이어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는데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조이어스교회에 도착하니 박종렬 목사님께서 반가이 맞아 주셨다. 박종렬 목사님은 내가 아이티에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교회에서도 아이티에 뭘 좀 하고 싶은데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대뜸 "자동차를 사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큰 눈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자동차요?" 그때 나는 알았다. 만년 지 5분도 안됐는데 너무 큰 것을 구한 것이다. 목사님은 치약, 비누등 생활 필수품을 몇 개 주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런데 자동차가 너무 절실해서요."라고 말했다. 목사님은 급히 선교부장님을 부르시더니 "사모님이 아이티에 자동차가 절실하답니다. 우리교회에서 자동차를 하나 해 드립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목사님! 조이어스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마워요." 나는 렌트했던 자동차를 우리의 자동차로 바꾸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티에 들어갔다. 아이티 사람들은 전체가 노숙자이다. 그러나 그 때 들어온 NGO단체들은 병원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비포장 도로를 포장도

로로 바꾼다..이다.

아이티는 배고픈고, 아프고, 옷도 없고..

아이티에 들어와 있는 한국인 미국에서 들어 와 있는 사람들이 80여명이 되었다

그들은 뿔뿔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나는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우선 예배드리는 것을 위하여 의자를 100개를 샀다. 한 점포에 의자가 5개 이상 있는 곳이 없었다. 이리 저리 모여 100개를 구입하는 동안 의자의 가격은 천태만상이다. 점포 주인의 마음에 따라 가격이 매겨 지는 것이다.

그 다음은 도미니카에서 배추 50포기를 사서 김치를 담궜다. 플라스틱 통을 마련하여 그 속에 담근 김치를 넣었다. 날씨가 더워서 겨울에도 30도가 넘는다. 한 나절만 익히면 된다.

냉면을 준비해서 아이티에 나와 있는 선교사를 80명을 초대했다.

오랜만에 선교사들이 모였다. 거의 목사님들이니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했다. 찬양을 하면서 다모여 있는 전원이 울기 시작했다.

낮설고 물 설은 아이티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예배를 잊은 지 오래 됐고 찬양을 잊은 지 얼마만인가?

그리고 냉면을 먹고 꿈에 그리던 한국 김치 한 통씩을 받으니 선교사님들이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사흘을 연이어 부흥회를 하고 드디어 우리 센터에 아이티 연합교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서로 고민 하면서 정수한 물을 공급하는 단체 등...을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날 이후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크레파스...등을 내놓는 단체가 많았다. 이것이 필요 없으니 필요로 하는 단체가 가져가라는 것이다. 선교단체마다 내놓는 물건들이 많았다. 서로 나누어 선교하는 기쁨, 선교 단체마다 정보를 공유하며 한 가족처럼 모이는 연합의 즐거움이 아이티 연합교회에 있었다.

특별한 목회자도 없이 틈만 나면 예배드리고 또 선교 하느라 우울했던 사람들을 상담해 주며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는 아이티 사람들의 의식주에 주력했다.

의류는 옷 만드는 공장에서 약간 흠집이 있는 것을 모아 계속 나누어 준다.

아이티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13세 미만 아이들에게 먹을 빵과 물을 준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 후 집에 가서 식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은 누나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며 선교사님을 부른다. 송연숙 선교사님은 즐지에 산파 역할까지 해야만 한다. 기생충 약을 먹지 않아서 몸이 기형이 된 아이들...우리는 기생충 약을 공급했다.

눈이 나빠서 사물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안경을 보급했다. 천지 만물이 달라졌다며 너무 즐거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 하고 있을 때 선한목자병원에서 연합을 해 주었다. 의료 센터를 임대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의료 센터는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연합해서 오면 대대적인 치료가 일어난다. 평소에는 현지인 의사 한 분과 간호사가 치료와 약을 처방한다.

시카고에 있는 의사 25명이 짝을 지어서 들어 왔다. 의료 센터에 400-500명의 치료 받을 사람들이 진을 쳤다. 그 일은 5박6일 동안 계속 되었다.

아이티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의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다는 것이 그들은 믿기지 않는 것이다. 의사들도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치료하며 섬겼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시내에 한 곳 있는데 그곳에는 갈 수조차 없는 환자들이다.

아이티 연합교회와 송연숙 선교사님이 땀을 흘리며 그 많은 인원을 도와 주었다.

우리의 사역은 조금씩 확대되어 나아갔다.

글/ 유정옥




누가 사용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쉼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 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쉼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리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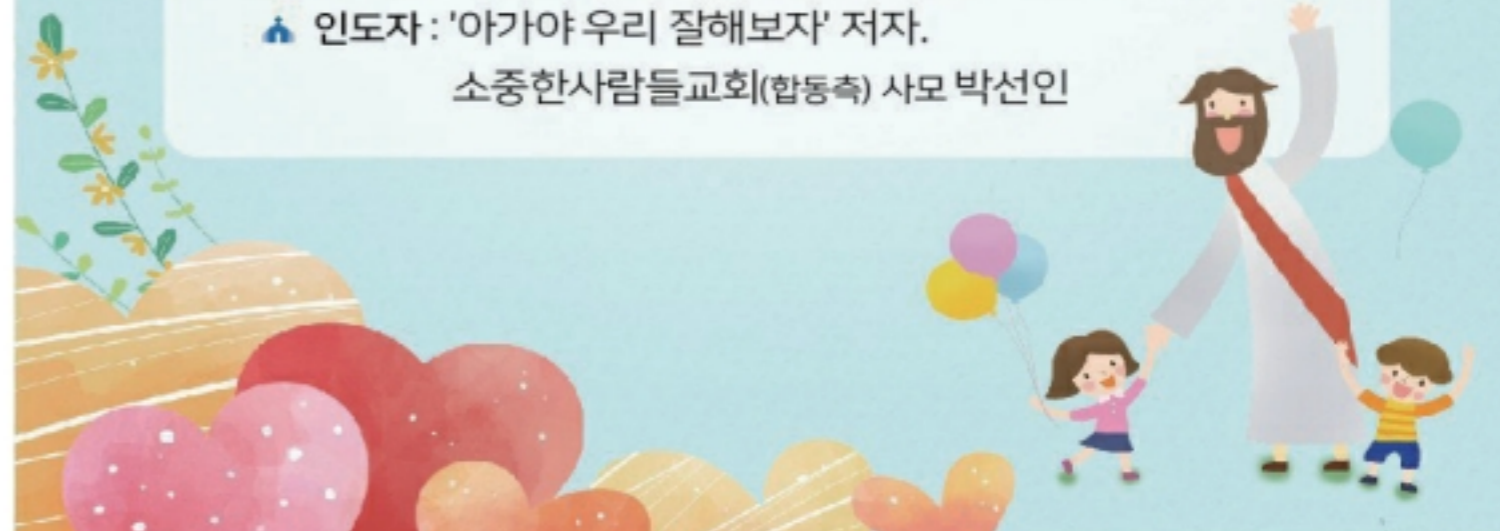


소중한 맘 7기 과정에 함께할 분을 모집합니다

- 말씀을 양육에 적용하고싶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모르겠나요?
-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싶나요?
그럼,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양육해 가야 합니다.
양육의 모든 답은 바로 말씀안에 있습니다
그 답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이에요.
저와 함께 답을 찾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길 원합니다

- ▲ 시작일: 3.6 목 오전10시
- ▲ 과 정: 10주과정 (매주 목요일마다)
- ▲ 자 격: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누구나,
기독교적 양육방법을 알고싶어하는 누구나
- ▲ 비 용: 무료
- ▲ 방 법: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과정
- ▲ 신 청: 카카오톡 anwlro0101 / 010.2125.9106
- ▲ 인도자: '아가야 우리 잘해보자' 저자,
소중한사람들교회(합동측) 사모 박선인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심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템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심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심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전*원(6일간)

2015년 5월 27일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구나! 어안이 병방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왔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안고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리트릿센터는 너무나 아늑하고 포근하고 마음속의 찌꺼기가 다 쏟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회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저녁기도회를 하고 세상 근심이 쌓일 틈이 없이 온혜로운 시간으로 보내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지내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의 환우들은 암과 싸우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인지 밝은 얼굴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저 또한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박*숙(6일간)

소중한 사람들과 리트릿 센터에서의 6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다시 회복하는 곳이었습니다. 병들고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었던 저인데, 이곳에 와서 감을 수 없는 큰 섬김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곳 소중한 사람들은 저에게는 엘리야에게 심을 허락하신 로템나무와 같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영육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식사, 중보기도, 예배, 성도 간의 교재를 통해서 위로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또한 저의 삶 속에서 암이라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소중한 사람들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3. 김*린(6일간)

저는 최근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후에 수술을 기다리며 쉬고 있던 중 시어머님의 소개로 소중한사람들 리트릿센터에 일주일간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깔끔하고 집처럼 아늑해서 좋았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단풍 뷰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밥이 정말 맛있어서 식사시간도 행복했습니다. 하루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후에 중보기도 모임에서 암 환우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렵고 우울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다시 이곳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희(6일간)

소중한 사람들과 리트릿 센터에서의 일주일의 시간은 제게 회복과 치유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두 번의 예배와 중보기도로 나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흐르지 않던 날 같은 내 마음이 저녁 예배 후 드리는 기도 성령님의 만지심 속에 눈물로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영의 양식을 공급했다면 매끼 정성스러운 암 환우 맞춤 식단은 투병 후 빠진 살을 6일 만에 찌우고 앞으로 어떻게 맛있게 조리해서 먹을지 아이디어를 얻게 했습니다. 또, 함께 입소한 환우 지매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만나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투병을 위로하며 앞으로 각자가 가진 비전을 격려하고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무너지는 마음과 몸을 혼자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는 동지 암 환우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소중한 대접 받으며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 정*애(6일간)

저는 며느리로,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생활 속에서 저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해야 할 일들에 묻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와보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움직이는 시간들 속에서 연속적인 경험을 되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나"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남편과 함께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맛있는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두 번의 예배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했던 것이 후회되어서 보약 같은 생명을 마시면서 몸과 맘이 정화되어 입이 쓰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6. 김*자(4일간)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투병 중이신데도 서로를 배려하며 웃는 얼굴로 타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룸메이트들은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시간인 것처럼 친구들에게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앙으로 만난 공동체의 우정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우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 임*윤(5일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몇 년을 아프고 살이 빠져서 사역도 살을 대하는 태도도 모든 것이 번아웃되어 힘들어하는 저에게 울게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암 환우가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 같이 빛나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환우들, 하루에 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온둔산 트레킹을 하면서 숨이 차고 배앓이로 늘 무기력한 저의 삶이 경쾌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누리 온혜였지만, 다 설명할 길은 없고 이러한 은혜가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 땅과 현금으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최고의 예배 감사합니다.

8. 정*희(6일간)

오래전부터 유정숙 사모님의 사역을 알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방암 환자가 되어서 소중한 사람들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소중한 사람들에 오게 되자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암 환자로서 암에 대해 공부하고 그 대처법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는 메가폰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암보다 주님께 더욱 마음을 두고 시은 열망으로 가득 차있는 상황에서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에서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풍욕 일광욕, 산책, 성경 읽기, 예배로 타이탄한 것 같지만 환우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온기 때문인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청평 소중ناس람들교회 헌금

●확장헌금●						
김병식(1,000,000) 이혜옥(10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도문식(300,000)	박선인(2,000,000)	방형덕(500,000)	이혜형(100,000)
●목적헌금●						
무명(200,000)	조은래(7,244,366)					
●천사헌금●						
김병식(2,000,000)	변영록(1,000,000)	장경숙(1,000,000)	장호형(1,000,000)			
●십일조●						
강인숙(200,000) 상혜숙(100,000) 정은정(100,000) 황우진(130,000)	노은순권사모(300,768) 심운화(260,000) 정은정(30,000)	박봉희(210,000) 심태영(100,000) 정은정(100,000)	박용범(280,000) 심태영(100,000) 최영자(130,000)	배윤경(60,000) 이성일(1,403,900) 최은희(200,000)	변영미(200,000) 이성일(300,000) 추연국(170,000)	변영미(300,000) 장은미(162,000) 황명자(130,000)
●성탄감사헌금●						
김동일(30,000) 방형덕(100,000) 이상일(100,000) 장호형(100,000)	김병식(100,000) 배윤경(100,000) 이신애(200,000) 정은정(100,000)	김순임(50,000) 변영미(200,000) 이재희(300,000) 정종순(50,000)	김연자(100,000) 서미순(100,000) 이정자(10,000) 진남주(50,000)	김태희(50,000) 심운화(20,000) 이태희(50,000) 최영자(50,000)	김흥덕(100,000) 오지영(100,000) 이혜옥(100,000) 황명자(80,000)	김희경(100,000) 유옥영(30,000) 이황희(50,000) 황우진(50,000)
●감사헌금●						
김사합니다(50,000) 곽은정(100,000) 구현주(100,000) 김덕용(100,000) 김병식(300,000) 김순정(100,000) 김철준(30,000) 김혜은(20,000) 김희경(100,000) 노은숙(300,000) 박경애(100,000) 박선영(100,000) 백인아(10,000) 서미순(100,000) 송기승(30,000) 엄영란(150,000) 오정희(500,000) 유재경(110,000) 이경숙(50,000) 이상숙(20,000) 이영복(10,000) 이혜숙(50,000) 임경희(50,000) 장호형(100,000) 정경희(300,000) 정종순(150,000) 주혜선(10,000) 최영자(10,000) 한혜경(10,000) 황복연(300,000)	감사헌금(100,000) 곽효정(100,000) 권오성(200,000) 김동일(100,000) 김병식(210,000) 김연자(50,000) 김태경(50,000) 김해정(20,000) 김희경(100,000) 노혜숙(100,000) 박광선(300,000) 박선영(6,000,000) 백현미(20,000) 서미순(100,000) 송상일(500,000) 엄영란(150,000) 오지영(200,000) 유정옥(100,000) 이경희(150,000) 이상일(100,000) 이영란(100,000) 이혜옥(100,000) 임동욱(50,000) 전대진(50,000) 정은정(50,000) 정종순(100,000) 진남주(100,000) 최영자(10,000) 현성원(50,000) 황서영(100,000)	감사헌금(100,000) 곽효정(50,000) 권오성(200,000) 김동일(100,000) 김보영(100,000) 김연자(50,000) 김태희(100,000) 김흥덕(100,000) 김희경(50,000) 노혜숙(100,000) 박광선(3,000,000) 박선인(110,444) 새롬퍼니처(15,000) 서미순(10,000) 신은철(20,000) 엄영란(100,000) 권영분(80,000) 유정옥(100,000) 이규만(300,000) 이상길(20,000) 이신애(100,000) 이운희(300,000) 이혜옥(100,000) 임동욱(100,000) 전상희(200,000) 정은정(50,000) 정종순(100,000) 최경순(100,000) 최대순(110,000) 최영자(10,000) 최영자(10,000) 황명자(40,000) 황우진(50,000)	김금숙(10,000) 곽효정(100,000) 김경란(300,000) 김동일(180,000) 김사라(50,000) 김영관(100,000) 김현숙(30,000) 김흥덕(100,000) 김희경(50,000) 단선화(420,000) 박금순(100,000) 박지우(10,000) 서강일(50,000) 서미순(10,000) 심운화(10,000) 연영희(20,000) 유봉열(50,000) 유정옥(100,000) 이상길(20,000) 이선희(200,000) 이신애(50,000) 이재희(300,000) 이혜옥(50,000) 장경순(300,000) 장남숙(100,000) 전운우(50,000) 정경희(250,000) 정재운(20,000) 정현숙(30,000) 최성숙(400,000) 최은선(75,000) 최은숙(30,000) 최혜령(250,000) 황명자(50,000) 황정순(300,000)	강희석(20,000) 곽효정(5,000) 김경리(50,000) 김명석(50,000) 김선아(50,000) 김영애(100,000) 김혜림,김은재(100,000) 김흥덕(100,000) 김희경(50,000) 류병환(100,000) 박금순(100,000) 방형덕(30,000) 서미순(500,000) 소한태(10,000) 양경임(50,000) 염애석(10,000) 유애은(100,000) 유정옥(100,000) 이선희(200,000) 이신애(100,000) 이재희(100,000) 이황희(312,800) 장은미(100,000) 정경희(50,000) 정종순(50,000) 정현숙(20,000) 최성희(20,000) 최혜령(250,000) 황명자(50,000) 황보순(100,000)	고선하(30,000) 곽효정(150,000) 김계숙(100,000) 김미순(100,000) 김선영(1,030,000) 김은숙(20,000) 김혜영(50,000) 김흥덕(100,000) 나경희(100,000) 문병순(20,000) 박미(50,000) 방형덕(30,000) 서미순(500,000) 손준익(100,000) 엄명란(200,000) 오임순(20,000) 유옥영(80,000) 윤소영(100,000) 이선희(100,000) 이신애(300,000) 이현복(50,000) 임경남(10,000) 정호형(100,000) 정경희(100,000) 조정덕(100,000) 최성희(20,000) 한장식(400,000) 황보순(100,000)	고정형(10,000) 구민정(20,000) 구규정(10,000) 김미영(50,000) 김순임(50,000) 김종수(100,000) 김혜원(70,000) 김흥덕(100,000) 나일주(800,000) 문병순(20,000) 박봉순(20,000) 배윤경(500,000) 서미순(100,000) 손준익(100,000) 엄명란(200,000) 오임순(20,000) 유옥영(80,000) 윤소영(100,000) 이선희(100,000) 이신애(300,000) 이현복(50,000) 임경남(10,000) 정호형(100,000) 정경희(100,000) 조정덕(100,000) 최성희(20,000) 한장식(400,000) 황보순(100,000)
●기관후원헌금●						
가락제일교회(100,000)	계경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순복음사랑교회(1,099,480)	(주)토탈이엔씨(100,000)
●CMS헌금●						
공은영(30,000) 김운집(30,000) 김현정(100,000) 문희순(10,000) 박운희(30,000) 신은미(30,000) 이다면(10,000) 이원인(150,000) 임동규(20,000) 정예은(5,000) 진성권(50,000) 하정숙(20,000)	김귀옥(30,000) 김유진(10,000) 김혜원(30,000) 박경미(20,000) 박효정(30,000) 양운정(100,000) 이미진(10,000) 이은숙(10,000) 임성숙(30,000) 정우찬(30,000) 최성(20,000) 하혜원(10,000)	김명숙(50,000) 김인경(50,000) 나일주(100,000) 박성준(30,000) 변영미(50,000) 오선희(50,000) 이성민(150,000) 이주현(10,000) 장미경(20,000) 정이랑(10,000) 최신숙(10,000) 홍금주(10,000)	김명화(30,000) 김인열(20,000) 나지용(15,000) 박성환(50,000) 서송열(10,000) 유미영(10,000) 이성일(100,000) 이주현(10,000) 장소현(30,000) 정일금(10,000) 최은숙(10,000) 황지연(50,000)	김민정(20,000) 김지영(10,000) 단선화(50,000) 박원정(10,000) 손미경(50,000) 윤성록(50,000) 이소영(30,000) 이준영(10,000) 장승아(10,000) 정현명(50,000) 최은주(10,000) 황지훈(100,000)	김성자(20,000) 김진영(10,000) 도주은(100,000) 박원준(20,000) 송연숙(50,000) 윤인초(10,000) 이승은(30,000) 이찬선(5,000) 정경희(30,000) 조남남(20,000) 최정미(20,000) 황준희(20,000)	김영신(30,000) 김태희(20,000) 문옥자(20,000) 박원준(50,000) 송필례(30,000) 이금순(50,000) 이옥란(10,000) 이혜경(50,000) 정미선(50,000) 조영실(40,000) 하정민(10,000)

청평힐링센터 2024년 12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7,444,366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2,029,604
천사헌금	5,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713,000
십일조	4,966,668	식자재구입비	14,767,679
감사헌금	34,037,724	전기요금	4,877,970
성탄감사헌금	2,470,000	가스요금	768,000
CMS헌금	2,835,000	화재보험료	1,200,000
		우편발송비	228,270
		홈페이지/ CMS사용료	297,500
		KT요금	1,238,860
		비품구입비(소모품)	1,256,150
		세금	57,270
		안전점검비	350,250
		병원대여금	4,000,000
		급여인건비	16,570,410
		사회보장보험료	500,000
		차용금반환	8,000,000
금월 수입 합계	56,753,758	지출 총액	56,854,963
전월 이월금	780,126		
차용금			
총 수입 합계	57,533,884	금월 잔액	678,921

소중ناس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 1월 : 정진산, 김효선(2,000,000) 김나형(1,000,000) 김혜숙(10,000,000) 유정옥(10,000,000)
- 2월 : 도주은(1,000,000) 박성준(1,000,000) 박진미(3,500,000) 이성일(10,100,000) 정일만(2,000,000)
- 3월 : 강금내(1,000,000) 김영옥(1,000,000) 김연자(1,000,000) 김옥경(2,000,000) 무명(100,000) 정현명(5,000,000) 하지인(1,000,000)
- 4월 : 박성준(1,000,000) 장미숙(500,000)
- 5월 : 김계숙(1,000,000) 강정운(40,000) 김연자(1,000,000) 김태희(300,000) 장미숙(500,000) 장준순(10,000,000) 홍지희(200,000)
- 6월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 김승만(1,000,000) 김연자(500,000) 박춘자(1,000,000) 변영미(1,000,000) 서금자(500,000) 이윤주(5,000,000) 임명자(1,000,000) 추연국(1,000,000) 추연소(1,000,000) 추연용(1,000,000)
- 7월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 김연자(500,000) 김태희(200,000) 도문식(500,000) 유지혜(1,000,000) 이유허(8,000,000) 이진홍(더폼인테리어)(200,000) 임명자(1,000,000) 정경희(500,000) 헌금(1,000,000)
- 8월 : 강정운(20,000) 김연자(500,000) 김영래(1,500,000) 단선화(100,000) 이유허(1,000,000) 정경희(1,000,000) 최영자(50,000) 하미애(1,000,000) 허태영(1,000,000) 헌금(500,000)
- 9월 : 강정운(20,000) 곽효정(1,00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명수,한이진(1,000,000) 김태희(100,000) 단선화(100,000) 최영자(350,000) 확장소망헌금(10,000,000)
- 10월 :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00,000) 단선화(1,000,000) 이기열(1,000,000)
- 11월 :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무명(3,000,000) 박춘자(3,000,000) 배윤경(1,000,000) 소중ناس람들(100,000) 유정희(200,000) 이금순(10,000,000) 최영자(200,000)
- 12월 : 김병식(1,00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도문식(300,000) 박선인(2,000,000) 방형덕(50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 12월말 현재 총, 147,440,000원

소중ناس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ناس람들교회

소중ناس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 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4년 12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나현호(200,000) 박정훈(100,000) 서정민(50,000) 예금이자(3,012) 유에스더(220,000) 이민석(10,000) 이성숙(20,000) 이순미(30,000) 추윤희(1,000,000) 한종석(200,000)

2024년 12월 소나무헌금 지출: 정*순(112,840) 최*숙(167,75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ناس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게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2월 가입자 명단 (4명)

489. 장호형 490. 변영록 491. 김병식 492. 장경숙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익	2 최미경	3 최경자	4 유재선	5 이명규	6 김수영	7 심종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조주영	11 박현숙	12 정동경
13 조현진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강희	19 차은옥	20 성기민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민	24 박순화
25 임종배	26 현영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종수	31 김덕양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태관	35 전지민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장영준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영익	43 송영옥	44 최병익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필자	48 정현종
49 김광길	50 최숙자	51 윤민	52 최병익	53 최유은	54 최태은	55 박정배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서희진	60 (영희)
61 이명영	62 심혜	63 이상수	64 박순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신미	68 김경연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향숙	76 이주연	77 변현영	78 배경희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정은	83 신영란	84 정훈기
85 김희향	86 정태은	87 박승희	88 허영희	89 김미현	90 신영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강희	95 박현희	96 홍영주
97 김현숙	98 무명	99 유성진	100 서수희	101 권희정	102 황순수	103 이희영	104 황정자	105 황현동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용현	110 계영신	111 그레시안	112 이은림	113 이상순	114 이동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강영성	118 현은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성희	123 박유민	124 이현나	125 이명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희영	129 조영석	130 박지현	131 김현희	132 박순화
133 안영신	134 김태현	135 박순숙	136 영수진	137 심태희	138 김현숙	139 오병화	140 이태희	141 김대희	142 전지희	143 조혜숙	144 이영희
145 박재경	146 민현나	147 이금향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영희	151 정영희	152 김희연	153 안영희	154 김향숙	155 문태은	156 임은미
157 고영석	158 김희희	159 김사라	160 박종영	161 박순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희진	165 이태순	166 이재희	167 이태은	168 정동경
169 김광란	170 유성경	171 이상순	172 황희남	173 김희정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민희	177 신진경	178 김영	179 이은구	180 문종란
181 김인숙	182 오경민	183 문지현	184 문지수	185 이다정	186 이은구	187 송희정	188 이희은	189 정윤호	190 김은혜	191 안동희	192 이영희
193 윤영현	194 이은구	195 이희영	196 현영희	197 박은순	198 이상숙	199 윤대호	200 최금진	201 김유진	202 김희연	203 장승아	204 정영신
205 박영자	206 양영경	207 오재현	208 H	209 박성문	210 홍지은	211 이희수	212 권민희	213 무명	214 황은진	215 박지현	216 유민정
217 김희진	218 이은주	219 박성문	220 노영희	221 박순화	222 이은희	223 정은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재희	227 박희영	228 김희숙
229 김수현	230 정숙희	231 김희희	232 남영희	233 남지현	234 남태현	235 김경자	236 박순숙	237 오은석	238 이재희	239 이상희	240 최재경
241 임계숙	242 이승희	243 안영희	244 김신영	245 김신영	246 손태희	247 홍수연	248 이은순	249 정희정	250 현종희	251 현희숙	252 김희연
253 박영희	254 현경숙	255 이기영	256 정은영	257 이우주	258 이우경	259 최영희	260 김미옥	261 김동수	262 조지영	263 이신	264 최영희
265 정승희	266 이현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최태진	270 손은미	271 송은희	272 윤동주	273 변영희	274 최희자	275 김경근	276 김동란
277 김주희	278 이가경	279 신현기	280 이현미	281 민윤희	282 이은주	283 안소희	284 이주영	285 김승경	286 홍복희	287 조병희	288 정영희
289 이영숙	290 조미나	291 정영희	292 박영희	293 윤주희	294 정승희	295 조병희	296 김희희	297 홍순경	298 이상희	299 김유진	300 양희경
301 김주희	302 김희자	303 정영희	304 조미나	305 김옥경	306 이희영	307 최진희	308 윤영희	309 김유진	310 변영	311 남기희	312 김소현
313 윤종민	314 박재현	315 이희진	316 민은희	317 최희정	318 정희숙	319 김지현	320 최희정	321 이복순	322 유승희	323 김희정	324 이상희
325 750204	326 김민희	327 김희규	328 최희정	329 이복순	330 김희정	331 민옥희	332 정희자	333 이은경	334 유성진	335 이상희	336 최영희
337 유지희	338 최희정	339 전성희	340 정영희	341 김희정	342 윤은희	343 현은희	344 정희자	345 이은희	346 김희숙	347 정영신	348 최지영
349 양희정	350 유성진	351 김희정	352 유희정	353 유은희	354 유희정	355 윤종희	356 최유은	357 현희정	358 최희정	359 현희정	360 정영희
361 최희정	362 정영신	363 오영희	364 정영희	365 권종희	366 박지현	367 김희정	368 김신희	369 정영신	370 정영희	371 정희자	372 김희숙
373 최희정	374 최희정	375 노영희	376 김희정	377 최희정	378 최희정	379 최희정	380 최희정	381 최희정	382 최희정	383 최희정	384 최희정
385 정영신	386 김희정	387 김희정	388 박희정	389 유희정	390 박희정	391 박희정	392 최희정	393 최희정	394 최희정	395 최희정	396 최희정
397 김희정	398 정영희	399 정영희	400 정영희	401 변영희	402 이희정	403 김희정	404 김희정	405 이희정	406 최희정	407 최희정	408 최희정
409 이희정	410 민희정	411 조희정	412 권희정	413 오희정	414 이희정	415 이희정	416 이희정	417 박희정	418 김희정	419 최희정	420 윤희정
421 김희정	422 박희정	423 최희정	424 최희정	425 최희정	426 이희정	427 최희정	428 김희정	429 정영신	430 김희정	431 최희정	432 최희정
433 박희정	434 정영희	435 최희정	436 최희정	437 정영희	438 김희정	439 최희정	440 김희정	441 최희정	442 최희정	443 최희정	444 김희정
445 최희정	446 김희정	447 최희정	448 최희정	449 최희정	450 최희정	451 최희정	452 최희정	453 최희정	454 최희정	455 최희정	456 김희정
457 최희정	458 최희정	459 최희정	460 최희정	461 최희정	462 최희정	463 최희정	464 최희정	465 최희정	466 최희정	467 최희정	468 최희정
469 최희정	470 최희정	471 최희정	472 최희정	473 최희정	474 최희정	475 최희정	476 최희정	477 최희정	478 최희정	479 최희정	480 최희정
481 최희정	482 최희정	483 최희정	484 최희정	485 최희정	486 최희정	487 최희정	488 최희정	489 최희정	490 최희정	491 최희정	492 최희정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현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성탄절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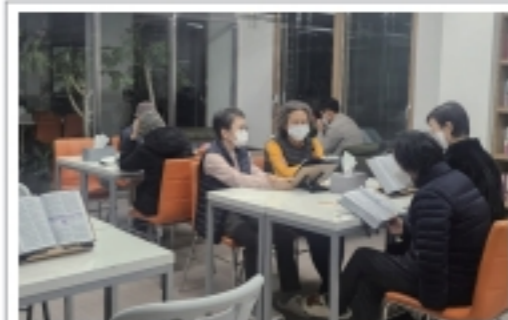
▲ 성탄절연극



▲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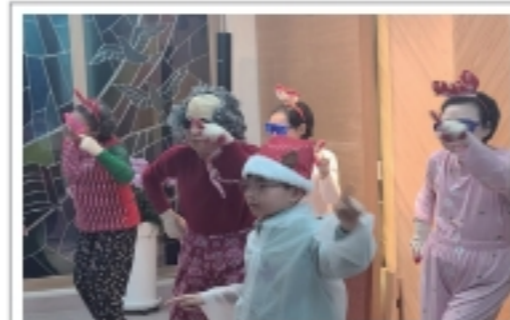
▲ 성경통독 소그룹



▲ 성경통독 소그룹



▲ 성탄 예배 찬양 준비



▲ 성탄 축하 댄스



▲ 성탄절 악기 연주



▲ 성탄 축하 댄스



▲ 송편 만들기



▲ 찜질방



▲ 찜질방



▲ 찜질방



▲ 도라지 손질



▲ 탁구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김*자(담도암재발,장궁경부,질,직장전이) - CT검사 알기가 커지지 않아 감사 일피지 면역항암제로 2번더 하기로 함, 통증의 근원을 다스려 통증없이 살기를
2. 배*경(폐암) - 3주 간격의 독성항암 부작용(숨가쁨,기침,오심,통증,불면)등 치유되기 원합니다.
3. 전*희(난소암,복막전이) - 3주에 한 번 사용중인 면역항암제로 암성통증이 줄고 복부팽만이 완전 사라지기를, 계속되는 항암으로 다른 장기들(방광,심장,눈)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되지 않기를
4. 김*일(폐암) - CT결과 2cm 줄어 들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 12/11일 검사했는데 좋은 결과 듣기를
5. 엄*린(유방암) - 12월에(3년6개월) 정기검진에서 모든 수치를 최상으로 이끌어 주시길 감사
6. 박*정(난소암) - 벨로데칸 항암 2차후 CT검사에서 골반내 암은 줄었으나 장골과 서혜부 림프절의 종양은 커졌다고 합니다. 림프절에 있는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른 장기로 전이 되지 않기를
7. 장*형(폐암) - 표적치료제로 치료 받고 있는데 전이된(목뼈,폐,고관절,꼬리뼈) 부분도 깨끗이 낫기를
8. 황*진(유방암,간전이) - 양쪽 유방절제술 잘 끝내서 감사, 이후 전이,재발 없이 깨끗이 나아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함
9. 이*옥(유방암,홍선암) - 1월에 있는 종양검사 특히 심장검사 있는데 항암부작용으로 생긴 심장병이 좋은 결과로 나와 심장약 끊고 홍락전이암도 깨끗이 사멸시켜 주옵소서
10. 김*수(다발골수종) - 이질로이드 희귀질환 재발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길, 심장이식,항암치료과정 부작용(호흡곤란,골다공증,빈혈)이 치유해 주시길
11. 정*순(유방암 뼈,림프전이) - 검사 결과 커지지 않고 약간 줄어 표적항암제 용량이 무리되지 않으면 그냥 쓰고 3개월마다 검사하고 1달에 1번씩 주사 치료하기로 함. 부작용(관절통,턱관절,구내염,알레르기)치유하여 주시고 내성 생기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기를 기도함
12. 이*희(유방암) - 11/20새로운 항암약으로 변경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길 기도함
13. 황*자(폐암) - 목에 혹이 나와서 검사해 보니 갑상선암이라고 함 수술하지 않고 두고 보기로하는데 치유되어 폐와 뇌에 있는 암도 작아지고 깨끗이 치유되기를
14. 장*희(유방암) - 현재 정기검진 받으며 추적관찰중입니다. 1/21일 검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15. 정*정(난소암) - 영적회복과 성장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해 온 것처럼 육체 회복을 위해서도 잘 먹고, 소화시키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16. 최*숙(육종암) - 독성항암 끝내고 다시 항암합니다. 약이 잘 듣기를 원하며, 기침 때문에 감마나이프 치료가 연기되었습니다. 숙히 기침이 멈추고 다시는 머리와 눈에 종양이 생기지 않기를
17. 김*덕(방광암,골반,치골전이) - 항암후 1/6일 결과 보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국 암요양병원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18. 장*희(유방암 4기) 1월 중순에 새로운 PET-CT 결과 듣습니다. 주께서 이미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19. 장*순(유방암) 표적치료를 하는 동안 부작용 없이 잘 마치고 완치하여 주어진 사랑 잘 감당하도록
20. 원*분(담도암,간전이) 항암제(팁소브) 부작용으로 힘들었는데 약을 끊고 부작용 없이 새 힘을 주셔서 감사 12/30일 검사 결과 볼 하나님에 일하셨음을 나타내기를 기도
21. 정*숙(폐암) 2000년 5월 폐암진단 받았고 2024년12월9일 뇌, 간에 전이되어 현재 항암중입니다. 7년전 남편이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치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22. 김*애(유방암) 12/31일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상처가 잘 치료되어지고 잘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3. 이*경(직장암,폐전이) 직장암 수술 후 1년 뒤에 폐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폐에 생긴 결절이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회복되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24. 김*경(유방암4기) 오른쪽 유방암 재발로 인해 수술 2번과 총40회 항암치료하고 잠시 중단하고 산약으로 임상 항암제를 할 계획입니다.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암제가 연결되어 내성 없이 끝까지 치료되기를
25. 허*영(난소암) 22년 난소암 4기로 수술 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한 임상항암약이 잘 반응하여 1400까지 올라간 암수치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갈 수 있기를
26. 방*덕(직장암) 직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중입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좋은 결과로 회복되기를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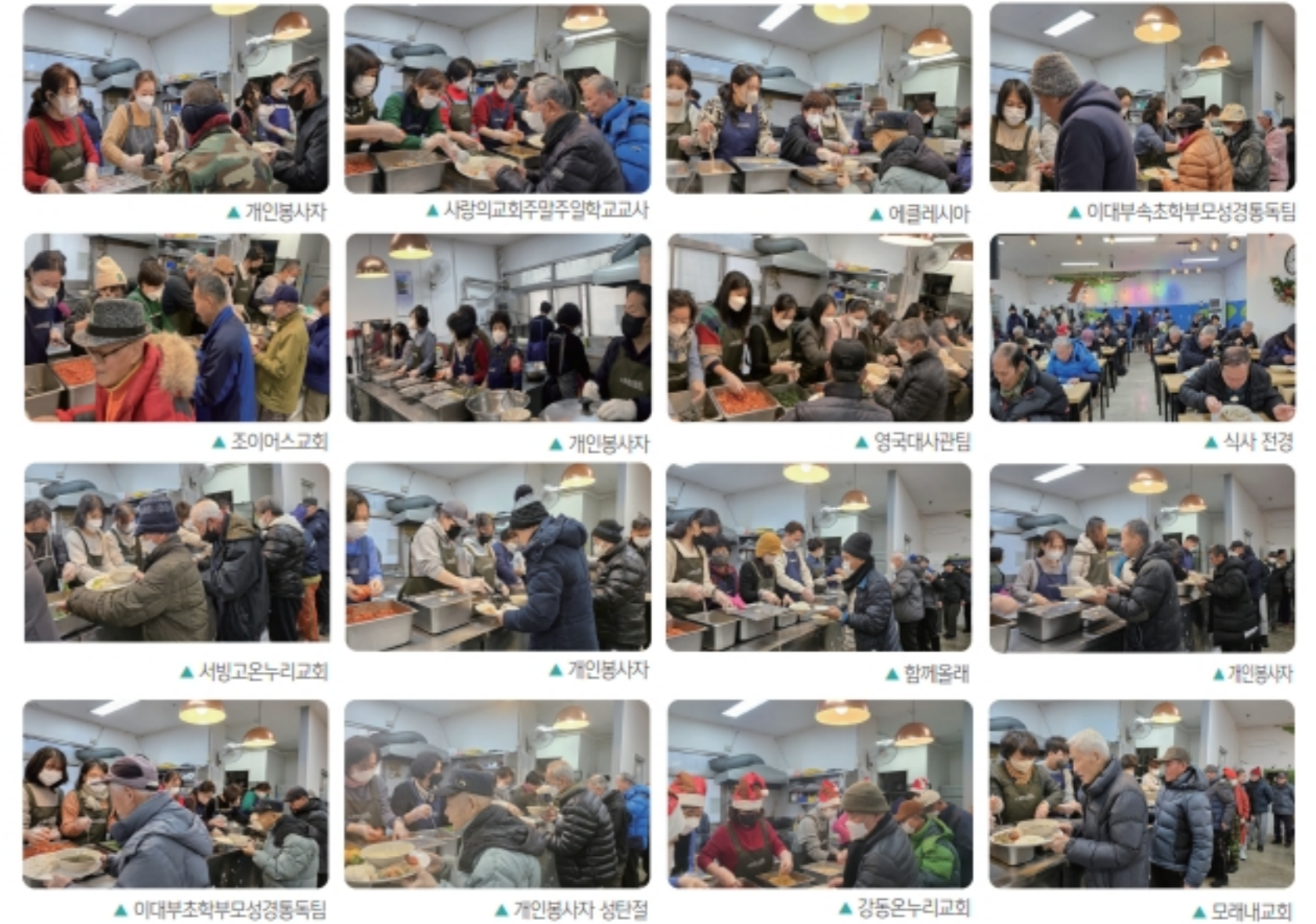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있는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컵라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워진 날씨로 얼은 노숙인들의 얼굴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해줍니다.
 추위로 다 타서 거칠어진 노숙인들의 손은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면 핫팩을 무명으로 보내주신 정성을 노숙인에게 전달합니다.
 후원해 주신 옷과 모자를 나눕니다.
 빵으로 가난한 이웃의 배를 채웁니다.
 뭐라도 있으면 그들에게 더 주고 싶습니다.
 그들도 역시 소중한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1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15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월에는 3일, 17일, 24일, 31일 이대 부속 초등학교 학부모 성경 동독반, 4일과 5일 영국 대사관 7일 사랑의교회 주일 학교팀 10일 조이어스 교회 14일 에클레시아 21일 함께올래 27일 강동은누리 교회 28일 모래내교회, 메시지교회에서 봉사에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김성수, 김영옥, 김진숙, 김현숙, 김미정, 박진희, 송경옥, 이소영, 이영훈, 임운엽, 양지니, 전두희, 진경희, 정치현, 최경희, 최금련, 정성훈, 최인선, 황부영, 황귀용, 한에스터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청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 화, 이황희... 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진승연, 정종대, 송기승,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대사관 직원들 “가난한 이웃에게 따듯함을 전하고 싶었다”

영국대사관 직원들 20여명 노숙인 무료 급식소 ‘소중한사람들’서 봉사



<‘소중한사람들’ 건물 앞에서 영국대사관 직원들과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사모>

주한 영국대사관 직원들은 12월 4일, 5일 이틀에 걸쳐 ‘소중한사람들’에서 밥퍼 봉사활동을 하였다.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도 함께 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급변하여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싶은 뜻을 실천하고자 대사관 직원들 20여명을 ‘소중한사람들’에 보내주었다.



‘소중한사람들’에게 작은 선물도 전달했다. 따듯한 기모치리 된 상의 100여벌과 육개장 사발면을 전달하며 식사 후 나가는 노숙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였다.



영국대사관 직원들은 봉사 후에 식사를 하며,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이 좋은 음식을 노숙인들에게 대접할 수 있어서 뜻깊다. ‘소중한사람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작은 성의를 전달한다”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속초 성경통독팀과 소중한찬양단, 메시지교회청년부
- *사랑의교회주일학교 교사팀의 특송
- *영국대사관팀의 봉사와 후원
- *오민숙님이 직접 만들어 오신 복숭아잼과 빵
- *소식지 우편물 봉사를 해주신 wework팀과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12월 21일 (토요일) 20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12월 26일 (토요일) 28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팀과 개인봉사자들



▲ 간식 나눔 준비



▲ 모자 나눔



▲ 배나나 나눔 조이어스교회 후원



▲ 사랑의교회 주일주일학교 교사 특송



▲ 소식지 우편물 봉사 wework팀



▲ 오민숙 후원품 복숭아잼 빵 나눔



▲ 옷 나눔 - 이등욱 후원



▲ 이미용봉사



▲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8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7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일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39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직장,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잠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역,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황우진, 김연자, 이혜옥,곽효정,배운경, 이재희, 김중수, 황명자, 장영희, 정은정, 정중순, 전상희, 김동일, 최성숙, 엄영란, 김홍덕, 정경희, 장경순, 정호형, 김희경, 방형덕, 잔남주, 원영분, 정현숙, 허혜영, 박수진,김자애, 이희경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중복, 김미희, 윤재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아델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구현주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형진님이 목 튜브 제거/봉합 시도차 입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목소리 나오게 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후원물품

- *직접 만드신 복숭아잼과 빵, 비누와 핫팩을 가져오신 오민숙님
 - *신사양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후원하신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잼을 100박스를 무명으로 후원하신 분
 - *식료품을 후원하신 공은숙님, 황0희님, 정은영님, 착한식탁,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매달 충분한 분량의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시는 노아
 - *소고기를 후원해 주시는 하나프라이
-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2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2/2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2/3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4	착한식탁	고구마	2박스	12/6-	급식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4	영국대사관	웃	100명	12/4-5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6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2/8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9	푸드뱅크	도라지배즙	25박스	12/9-	나눔	서울역/소중사람들
12/9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12/9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9	조아이스교회	바나나	3박스	12/9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9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쌀	1포	12/11-	급식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12	무명	쌀	1포	12/13-	급식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13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2/15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14	무명	얼그레이잼	100박스	12/15-17	나눔	서울역/소중사람들
12/16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2/17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19	모담교회공은숙	누룽지	100개	12/19-	급식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20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신사양말	100개	12/24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20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2/2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23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2/24-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25	육천포도 오민숙	잼/빵/핫팩/비누	100여명 분	12/26	나눔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25	정은영	쌀	3포	12/26-	급식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26	노아	고기	5박스	12/27-	급식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12/27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2/29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31	하나프라이	소고기	5박스	1/1-	급식	소중사람들교회 노숙인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법천지로 변했다. 무장 강단의 폭등으로 경찰서와 은행이 불타고 도시에 흉탄이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곳곳에 시신이 굴러다니고 약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 나라엔 현재 대통령이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전격 사퇴했다. 국회도 없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단은 고도소 2곳을 습격해 수천 명의 범죄자를 달옥시켰다. 국제 공황과 항구, 최소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했다. 다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힘겹게 병원으로 옮겨가거나 하면 불에 탄 차들과 타이어, 부서진 건물 잔해가 거리에 널려 있다. 하지만 폭등을 막을 경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민을 도와야 할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1월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만료돼 국회의원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은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할 인력과 장비, 병상, 약품, 혈액 부족으로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혼란을 틈타 무장 강단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아리엘 앙리 총리 퇴진을 요구해 왔다. 앙리 총리는 지난해 7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말 이 를 번복하고 케냐로 출국했다. 케냐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려 한 것이다. 아이티 사회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배마을에 이어 초등학교와 교회들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바칩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풍갈래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여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새해를 후원자님들과 함께 맞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던 2024년을 보내면서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의 사역에 일일이 간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롯왕의 위협과 병거와 군대를 앞세운 무력 앞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사람들을 먼저 챙겨 주시고 노숙자들의 추위와 아픔과 외로움에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적 헌금을 보내주신 미국 뉴저지의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고무원, 구명선, 김가람, 김병국, 김영림, 김영선, 김종명, 김진숙, 김태희, 나은선, 노아, 도문식, 문영숙, 박금용, 박민경, 박수현, 박인혜, 박철규, 박혜수, 성찬영, 송희중, 신승우, 신영준, 신현정, 신형진, 오동현, 유광현, 유영재, 유정옥, 윤용석, 윤원식, 윤철숙, 이고은, 이은주, 이재욱, 임나리, 임맹자, 장종숙, 전상희, 정경희, 정영남, 최영화, 최진옥, 하나님께 감사, 한은숙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감)안양감리교회, (예정) 경주제일교회, (예정)영락교회와, (예정)사랑의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쁜우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관 감사 헌금을 보내주신 온누리 약국 복지회, 서일이엔엠(주) 한국 경제신문, 에클레시아, UKONLIN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유정희,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 이공이, 이재희, 유진상 황귀용, 정준호 정미혜, 천영태, 최성숙, 한송희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헌금을 보내주신 김미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김미영, 조경숙, 한종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력무력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라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황우진, 김연자, 이해옥, 광호정, 배윤경, 이재희, 김중수, 황명자, 장영희, 정은정, 정종순, 전상희, 김동일, 최성숙, 엄영란, 김홍덕, 정경희, 장경순, 장호형, 김희경, 방형덕, 진남주, 원영분, 정현숙, 허혜영, 박수진, 김자애, 이희경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정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호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해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운,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 구현주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2024년 12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4년 12월 01일 ~ 12월 31일까지)

●십일조 헌금●

강덕희(230,000)	고무원(200,000)	구명선(200,000)	김가람(420,000)	김병국(300,000)	김용수, 송연숙(350,000)
김영림(1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 손미나(1,800,000)	김종명(200,000)	김진숙(200,000)	김태희(150,000)
나은선(300,000)	노아(1,000,000)	도문식(500,000)	윤영숙(200,000)	박금용(100,000)	박민경(300,000)
박수현(200,000)	박인혜(150,000)	박철규(300,000)	박혜수(500,000)	성찬영(1,300,000)	송희종(500,000)
신승우(500,000)	신영준(300,000)	신현정(200,000)	신형진(450,000)	오동현(300,000)	유광현(300,000)
유영재(350,000)	유정욱(250,000)	윤용석(300,000)	윤원석(200,000)	윤철속(300,000)	이고은(450,000)
이성웅, 이한나(550,000)	이은주(1,000,000)	이재욱(2,000,000)	임나리(600,000)	임맹자(160,000)	장종숙(100,000)
전상희(220,000)	정경희(250,000)	정영남(100,000)	조미영(100,000)	최영화(100,000)	최진욱(500,000)
하나님께감사(290,000)	한은숙(300,000)				

●성탄감사헌금●

김명욱(50,000)	김용수, 송연숙(100,000)	유정욱(200,000)	장종숙(50,000)	전상희(50,000)
-------------	-------------------	--------------	-------------	-------------

●개인 감사헌금●

강덕희(40,000)	강성희(20,000)	강은옥(10,000)	고영욱(10,000)	곽혜란(50,000)	권정연(90,000)
급식후원(10,000)	김갑희(9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이(50,000)	김남이(50,000)
김대수(20,000)	김동민(10,000)	김명욱(80,000)	김미선(50,000)	김미정(20,000)	김병식(200,000)
김선아(100,000)	김선형(100,000)	김선희(50,000)	김성희(30,000)	김용수, 송연숙(20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영숙(50,000)	김이영(10,000)	김정훈(10,000)	김진환(100,000)	김태희(50,000)
김태희(6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서(20,000)	김현숙(30,000)	김희정(50,000)
나미정(100,000)	나종숙(60,000)	남경희, 이미옥(100,000)	노원균(30,000)	류한금(10,000)	명성자(50,000)
박대수(20,000)	박동준(20,000)	박문희(50,000)	박미수(10,000)	박민희(30,000)	박봉희(50,000)
박선영(5,00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50,000)	박영일(100,000)	박인혜(50,000)	박정애(30,000)
박정욱(90,000)	박정환(20,000)	박종철(30,000)	박종철(30,000)	박진희(50,000)	배희영(10,000)
변경자(20,000)	성명숙, 이경민(50,000)	손복순(20,000)	송계순(30,000)	송기승(110,000)	심요엘(10,000)
안창현(50,000)	안형욱(100,000)	양복길(13,000)	오경남(20,000)	오선욱(100,000)	오선향(100,000)
오지석(100,000)	유재학(120,000)	유정욱(10,000)	유진상, 황귀용(200,000)	윤재운(40,000)	윤화(40,000)
이강혁, 이강현(30,000)	이공이(1,000,000)	이기형(40,000)	이미일(100,000)	이상훈(10,000)	이선아(100,000)
이성웅, 이한나(50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영숙(20,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웅남(30,000)	이원욱(100,000)	이윤아(3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인영(50,000)
이재성(50,000)	이재희(1,00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20,000)	이지은(10,000)	이찬우(50,000)
이춘(100,000)	이태희(50,000)	이현경(50,000)	이황희(50,000)	임맹자(100,000)	임미선(10,000)
임윤엽(130,000)	장광욱, 장자민(50,000)	장란숙(100,000)	장종숙(40,000)	장지호(50,000)	전두희(30,000)
전혜영(10,000)	정봉연(50,000)	정영애(20,000)	정운(50,000)	정재근(110,700)	정종대, 진승연(100,000)
정주연(50,000)	정준호, 정미혜(150,000)	정혜영(100,000)	조민화(10,000)	조성애(50,000)	조을남(10,000)
조정희(10,000)	조진영(50,000)	천영태(1,000,000)	최경선(100,000)	최성숙(500,000)	최성은(10,000)
최영화(40,000)	최진복(20,000)	최진자(100,000)	하영숙(20,000)	한경숙(10,000)	한보성(100,000)
한송희(100,000)	한송희(100,000)	한에스터(100,000)	허동욱(20,000)	홍복실(100,000)	황부영(70,000)

●교회 감사헌금●

(가감)벨렐교회(100,000)	(가감)선재중앙교회(100,000)	(가감)선한목자교회(100,000)	(가감)안양감리교회(200,000)	(가감)정동제일교회(1,000,000)
(가성)식도성결교회(50,000)	(가성)아현성결교회(100,000)	(예정)경주제일교회(200,000)	(예정)문호교회(100,000)	(예정)양의문교회(30,000)
(예정)하나로교회(100,000)	기쁜우리교회(1,000,000)	김선꽃선교회(2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사랑의교회(700,000)	예봉교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기관 감사헌금●

UK OLINE GIVING FOUNDATION(70,147,060)	갯피플웨딩(50,000)	계영산업(50,000)	글로벌비즈니스엔파트너스(50,000)
길벗여행사(100,000)	로고스터디카페(20,000)	마라나타(30,000)	사랑의센터(50,000)
에클레시아(500,000)	엔씨마수학학원(100,000)	영국대사관(1,000,000)	영진공영(1,000,000)
창세에스엔티(50,000)	한국경제신문(600,000)		서말이엔엠(10,000,000)
			씨앤지코리아(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주)커피테크(100,000)

●미얀마고아 선교헌금●

(주)글로벌비즈니스(4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미영(25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찬성(40,000)	안성훈(송명욱)(40,000)	유경미(40,000)
윤혜경(40,000)	이상자(40,000)	이상자(4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추윤희(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조춘식(40,000)
-------------	-------------	-------------	-------------	-------------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	-------------	-------------

●북한고아 선교헌금●

(주)글로벌비즈니스(4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영(300,000)
김마원(40,000)	김소명(5,000)	박승호(50,000)	박혜영(3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순주(2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추윤희(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주)엔페이브(100,000)	남가국(10,000)	신경자(10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전혜봉(20,000)
지선옥(2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면구(40,000)	박진희(40,000)
-------------	-------------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갯피플웨딩(40,000)	갯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미영(250,000)	김상진(손향)(40,000)	김화련(50,000)
노윤정(40,000)	박서준(100,000)	박선인(40,000)	박선주(80,000)	새산성교회(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안서영(송명욱)(40,000)	윤혜경(40,000)	이재혁(40,000)
이혜란(40,000)	장요셉(손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이찬의(40,000)
추윤희(4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의해(50,000)	홍정희(40,000)	최준호(8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무명(300,000)	박영미(35,000)	박종래, 최임선(20,000)	박혜진(10,000)
성한영(5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준호(30,000)	하미경(50,000)	한종석(200,000)



강금내(30,000)	강도숙(10,000)	강연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전혁(1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유경(30,000)	고정숙(1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태준(1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수(30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민자(2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현(30,000)	김수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옥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일행(2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행은(10,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희진(광명) 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류희정(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희(10,000)	박다운(5,000)	박영희(10,000)	박문희(2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문(20,000)	박성영(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영수(10,000)	박유미(30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자상(10,000)
박재원(내은미) 10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서기준(10,000)	서상숙(20,000)	서정국(50,000)	서혜원(20,000)	석진혁(3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희(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송하정(10,000)	신승우(50,000)
신영주(10,000)	신용순(1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훈(5,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완(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선(1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미경(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상중(5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유진(3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은혜(50,000)	이은혜(50,000)	이의신(10,000)	이의희(10,000)
이재림(박연순) 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민(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주아(20,000)	이주희(50,000)	이준목(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진숙(3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혜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영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운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경(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혜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찬(10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미원(6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윤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춘호(5,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10,000)	최경애(2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숙순(10,000)
최완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인애(30,000)	현정원(100,000)
홍성경(30,000)	홍순경(20,000)	홍신숙(100,000)	홍영희(5,000)	홍윤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20,000)	홍주연(20,000)
홍현미(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C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헌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input type="checkbox"/>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미 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
국
부
회